

삼국통일 후 신라 6정·10정의 재편과 운용*

홍성열**

-
- I. 머리말
 - II. 신문왕대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10정
 - III. 신라 중대 정(停)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신라 중고기 핵심 군사조직이며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시 큰 역할을 담당했던 6정이 전쟁 이후 신라 군사조직 재편과정에서 해체되었는지, 아니면 존치되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삼국통일 이후에도 6정은 변화하거나 축소, 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었다. ‘정’ 이름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을 보았을 때 6정은 10정의 상위부대로서 10정을 지휘하였다. 6정과 10정에 소속되어 있는 군관직을 살펴보면 보병군관만 소속되어 있는 6정과 기병군관이 포함되어 있는 10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6정 중 왕경의 대당을 제외한 5정은 군관구처럼 운영되었다. 5정 중 3정은 1개의 주를 관할하나, 상주정(귀당)은 2~3개의 주를 함께 관할하였다. 6정의 관할구역은 왕경-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연관되며, 1개의 정은 교통로상 경유지를 묶어 관할하였다. 6정의 각 구성부대는 같은 금색을 쓰는 10정 군사조직을 예하에 두고 지휘하였다. 왕경에서 출발하는 간선 교통로를 관리하기 쉬운 교통의 요지에 10정을 두고, 하나의 간선 교통로가 연결된 지역을 묶어 대당 외 지방 주둔 5정이 광역의 군관구의 모습으로 지휘하였다. 다만 완산정의 경우 금색이 백자인 데 반해, 삼랑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은 금색이 흑색이기에 금색이 다르다. 이는 금마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신라는 반란 진압 후 이 지역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협도가 낮고, 왕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왕경의 군사들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남방지역을 관할하는 하주정을 폐지, 완산정으로 개편했기 때문으로 완산정은 반란 감시란 명확한 목적을 가지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전쟁기념관(전쟁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하에 10정 조직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신라, 군사조직, 삼국통일, 6정, 10정, 금색

I. 머리말

한국고대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운용된 군사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조직을 전하는 자료는 희소하며, 신라의 군사조직만 『三國史記』 권40 잡지9 직관下 무관조(이하 무관조)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무관조에 나타나는 신라 군사조직은 총 23개이다.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군사조직이 6정이다. 6정은 진흥왕 5년(544) 大幢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된 貴幢,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 등 총 6개의 부대로 구성되는 군사조직이다. 이들은 삼국통일 이전 중고기 시기 신라의 대표적인 군단으로 대외적 팽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6정은 삼국통일 이후에 그 체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기에 축소 또는 해체되었고, 대신 9誓幢과 10停, 특히 삼국통일 이후 신라 中代의 핵심 지방군사조직이라고 보고 있는 10정이 6정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보고 있다.²⁾ 그런데 정말 6정이 삼국통일 이후 해체되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6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완비된 시기는 6정을 이루는 군사조직 중 下州停이 완산정으로 개편된 신문왕 5년(685)이며,³⁾ 10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완비된 시기는 신문왕 5년(685)~신문왕 7년(687)로 보고 있다.⁴⁾ 이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의 군사조직을 창설하고 개편을 완료하자마자 그 군사조직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군사조직으로 개편했다는 것인데, 많은 시간과 공력이 소모되는 체제 개편을 이렇게 곧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신라 중고기 핵심군사조직이며 삼국통일전쟁 ~ 나당전쟁시 큰 역할을 담당했던 6정이 전쟁 이후 신라 군사조직 재편과정에서 해체되었는지, 아니면 존치되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李基白·李基東, 1982, 340쪽 ; 주보돈, 1987, 29쪽 ; 이문기, 1997, 71쪽.

2) 국사편찬위원회, 2003, 139쪽 ; 이영호, 2016, 106쪽.

3) 이문기는 군호(軍號) 6정이 성립되는 시기를 가장 마지막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완비된 완산정의 설치시기로 보고 있다(이문기, 1993, ; 1997, 81~82쪽). 신라 중고기 말 신라가 왕경 일대를 포함한 6개의 광역주로 정비되면서 6정 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견해(강봉룡, 1990, 73쪽)도 있으나, 이문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따른다.

4) 末松保和, 1954, 366~367쪽 ; 한준수, 2005, 217쪽 ; 2021, 114쪽 ; 이경섭, 2018, 120쪽. 다만 최범호의 경우 10정 설치 마무리가 백제영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문무왕 5년(665)경에 설치를 끝냈다고 보았다(최범호, 2023b, 162쪽).

만약 6정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 운용되었다면, 중대에는 6정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또한 같은 정 이름을 사용하는 10정과 어떤 관계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10정이 6정의 역할을 이어받은 군사조직인지, 다른 조직이라면 6정과 10정의 지휘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신문왕대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10정

문무왕 16년(676)년, 伎伐浦 전투를 끝으로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였다.⁵⁾ 약 35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⁶⁾ 문무왕과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신문왕은 삼국 통일에 따른 영역의 확대에 따라 여러 제도를 개편하고 정비하였다.⁷⁾ 이 과정에서 군사조직 역시 개편이 이루어졌다.

A-①.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제작하였고, 백성들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심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양곡 등이)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 변경의 城·鎭을 지키는 일과 州縣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긴요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폐지하고, 律令格式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⁸⁾

A-①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무왕 21년(681) 遺詔 기사의 일부분이다. 문무왕의 유조 기사를 통해, 문무왕은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역과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여러차례 사면을 시행하고 개인 채무 탕감 등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⁹⁾ A-① 사료에서 군대와 관련된 부분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라는 부분과 “변경의 성·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긴요한 것이 아니면 폐지하라” 하는 부분이다. 이 대목은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 왔으니 군대, 장병을 줄이고 병기를 농기구로 다시 제조하여 병사들을 농사에 종사시키라는 부분이다. 『三國遺事』 권3, 제4 塔像 鑿藏寺彌陀展조의 삼국통일 이후 태종무열왕이 계곡에 병기와 무구를 숨겨서 무장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전쟁 이후 신라가 군대와 관련된 사업을 축소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¹⁰⁾

5) 이상훈, 2023, 227쪽.

6) 노태돈, 2009, 51~53쪽.

7) 이상훈, 2016.

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21년 “鑄兵戈爲農器 驅黎元於仁壽 薄賦省徭 家給人足 民間安堵 域內無虞 倉廩積於丘山 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 無負於士人 … 其邊城鎭遏 及州縣課稅於事非要者 並宜量廢 律令格式 有不便者 即便改張 布告遠近 令知此意 主者施行.”

9) 조법중, 1999, 23~26쪽.

그런데 문무왕의 유조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당전쟁이 종료된 이후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축소시켰는지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676년의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나당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고, 나당전쟁 이후에도 당은 지속적으로 신라를 침공하여 정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¹¹⁾

따라서 신라는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동안 확대, 증설한 군사조직을 다시 축소, 통폐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무관조에 서는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군사조직이 증치되는 모습이 보이며, 오히려 군사조직이 폐지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은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시기 창설된 군사조직과 나당전쟁 종전 이후 창설된 군사조직을 정리한 것이다.¹²⁾

[표-1]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660~676) 및 전쟁 이후 설치된 군사조직

	No.	연대	설치	계
삼국통일전쟁 ~ 나당전쟁	1	문무왕 11년(671)	중당(仲幢)	14
	2	문무왕 12년(672)	장창당(長槍幢) 우수주계당(牛首州周幢) 한산주서(漢山州誓) 우수주삼천당(牛首州三千幢) 하서주서(河西州誓) 나토군삼천당(奈吐郡三千幢) 백금서당(白衿誓幢)	
	3	문무왕 13년(673)	귀당(貴幢: 상주정에서 변경) 우수정(牛首倂) 우수주서(牛首州誓)	
	4	문무왕 14년(674)	백금무당(白衿武幢)	
	5	문무왕 15년(675)	구칠당(仇七幢) 나생군삼천당(奈生郡三千幢)	
나당전쟁 이후	1	문무왕 17년(677)	자금서당(紫衿誓幢: 낭당에서 변경)	16
	2	신문왕 3년(683)	황금서당(黃衿誓幢) 흑금서당(黑衿誓幢)	
	3	신문왕 5년(685)	완산정(完山倂) 완산주서(完山州誓)	
	4	신문왕 6년(686)	벽금서당(碧衿誓幢) 적금무당(赤衿武幢) 적금서당(赤衿誓幢)	
	5	신문왕 7년(687)	청금서당(靑衿誓幢) 황금무당(黃衿武幢)	
	6	신문왕 9년(689)	개지극당(皆知戟幢)	
	7	신문왕 10년(690)	삼변수당(三邊守幢: 漢山邊, 牛首邊, 河西邊)	
	8	효소왕 2년(693)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에서 변경)	

10) 『삼국유사』 권3 탐상4 “鑿藏寺彌陀展 “諺傳 太宗統三已後藏兵鑿於谷中 因名之.”

11) 임기환, 2016, 172~173쪽 ; 홍성열, 2022b, 63쪽.

12) 홍성열, 2022b, 63쪽의 표를 수정 게재하였다. 군사조직 설치 기록 중 五州誓의 경우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문무왕 12년(672) 5주서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末松保和는 5주서 명칭에 쓰인 주의 이름을 볼 때 한산주서·하서주서만 문무왕 12년에 설치되었고, 우수주서는 문무왕 13년(673), 마지막으로 신문왕 5년(685)에 청주서와 완산주서가 설치됐다고 보았다(末松保和, 1954, 367~370쪽). 필자도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표-1]에서도 설치년도를 구분하였다. 삼변수당은 군단화 된 것이 신문왕 10년(690)이고 삼변수당을 구성하는 예하조직은 이미 문무왕 후반기(668~673)에 존재했다는 견해도 있으나(한준수, 2016), 구성부대의 설치연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에 『삼국사기』 무관조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다. 또 자금서당과 비금서당은 낭당·장창당이 명칭 변경된 것인데, 이를 부대 명칭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군사조직에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대 지휘체계, 편제 등 그 구성요소가 함께 개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표-1]에서는 부대를 신설한 것과 동등하게 보겠다. 귀당은 상주정과 병존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나, 무관조 기록에는 상주정이 귀당으로 개칭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 역시 부대 신설과 마찬가지로 보아 표에 추가하였다.

[표-1]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설치된 군사조직이 14개, 전쟁 종료 이후 설치된 군사조직이 16개로 나타난다. 전쟁 종료 이후 창설된 군사조직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서당 구성부대 중 8개 부대가 나당전쟁 이후에 신설되었고, 북변을 지키는 경계부대인 3번수당도 나당전쟁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곧 신라는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군사조직을 폐지, 축소하기보다는 더욱 증강하였고, 이와 함께 증강한 군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복수 군사조직을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 묶어 군단화하였고, 왕경과 지방에 같은 성격을 지닌 군사조직을 설치하여 왕경과 지방이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징병이 아닌 모집한 병사(召募兵)로 구성된 군사조직을 확대하였다.¹³⁾ 이는 한편으로 넓어진 영토와 증가한 백성을 통치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였다.¹⁴⁾

이 과정에서 신라 중고기 핵심 군사조직으로 활동했던 6정의 재편 및 정비도 이루어졌다. 6정은 무관조에 나오는 군사조직 중 그 설치연대가 가장 오래된 군사조직으로, 6정을 구성하는 예하 조직인 대당의 경우 진흥왕 5년(544)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6정을 구성하는 다른 군사조직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진흥왕대에 창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치연대가 오래된 만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부터 삼국통일전쟁, 나당전쟁까지 그 활동상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이 때문에 6정에 관한 연구는 신라 중고기 시기 활동 모습에 집중되고 있으며,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시기의 6정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나 중고기 및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시기의 6정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략하다.¹⁵⁾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6정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의 입장 차에서 나온 것인데,¹⁶⁾ 연구자 대다수가 6정이 통일 이후에 해체되었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잠깐 존재했다가 다른 군사조직으로 재편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6정을 삼국통일 이전 신라

13) 이문기, 1999 ; 2012, 193~223쪽.

14) 홍주희, 1989, 5쪽 ; 이문기, 1999 : 2012, 204쪽 ; 이상훈, 2016, 313쪽.

15) 6정 관련 연구로는 末松保和, 1932 : 1954 ; 井上秀雄, 1957·1958 : 1974 ; 김철준, 1975 : 1990 ; 이기백, 1977 : 1978 ; 李成市, 1979 : 2022 ; 강봉룡, 1987 : 1990 ; 이문기, 1986 : 1997 ; 주보돈, 1987 ; 최원식, 1987 ; 이명식, 1988 ; 이인철, 1989 : 1993 ; 노근석, 1992 ; 전덕재, 1997 : 2001 : 2023 ; 서영교, 2000 : 2016 ; 김중수, 2004 : 2020 ; 한준수, 2005 : 2012 ; 최상기, 2013 ; 최경선, 2018 : 2019 ; 최범호, 2018 : 2023a : 2023b ; 신범규, 2024 등이 있다.

16) 전덕재, 1997, 47쪽.

17) 삼국통일 이후 6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논지를 진행한 연구자는 이명식, 전덕재, 김중수, 최범호 등이 있다. 이명식은 6정이 통일기에 조직이 더욱 보강되어 신라의 핵심적인 군제로 발전하였고 신라 군사조직의 골간(骨幹)을 이루었다고 인식하였다(이명식, 1988, 71~72쪽). 전덕재는 6정이 9서당과 함께 통일 이후에도 전시에 동원되는 행군군단(行軍軍團)으로 활용하였다고 파악하였다(전덕재, 1997, 48~49쪽). 김중수는 6정이 9서당, 10정 등과 함께 삼국통일 이후 7세기 후반 대대적으로 시행된 군제개편 작업의 결과로 성립된 전시체제 및 행군조직으로 보았다(김중수, 2020, 152쪽). 최범호는 6정이 영토확장과정에서 병력 등 인력 동원을 위한 전략적인 체제로 역할을 하다 통일 이후에 지방이 9주 체제로 완비되자 주치에 상주하는 주치정으로 변화했고, 치안부대 성격을 띠었다고 보았다(최범호, 2023b, 168~169).

중고기 시기의 대표 군사조직으로만 보는 시선이 강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6정은 해체되지 않고, 부대개편과 정비를 통해 삼국통일 이후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B. 6정. 첫째는 대당이다. 眞興王 5년(5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衿의 색깔은 紫白이다. 둘째는 上州停이다. 眞興王 13년(552)에 설치하였다. 文武王 13년(673) 명칭을 貴幢으로 바꾸었다. 衿의 색깔은 靑赤이다. 셋째는 漢山정이다. 본래 新州停이었다. 眞興王 29년(568) 新州정을 폐지하고 南川停을 설치하였다. 眞平王 26년(604) 南川정을 폐지하고 漢山정을 설치하였다. 衿의 색깔은 黃靑이다. 넷째는 牛首정이다. 본래 比烈忽停이었다. 文武王 13년(673) 比烈忽정을 폐지하고 牛首정을 설치하였다. 衿의 색깔은 綠白이다. 다섯째는 下州정이다. 본래 悉直停이었다. 太宗王 5년(658) 悉直정을 폐지하고 下州정을 설치하였다. 衿의 색깔은 綠白이다. 여섯째는 完山정이다. 본래 下州정이었다. 神文王 5년(685) 下州정을 폐지하고 完山정을 설치하였다. 衿의 색깔은 白紫이다.¹⁸⁾

B는 『삼국사기』 무관조에 기록된 6정 관련 기사이다. 6정 관련 기사는 6정을 구성하는 6개 군사조직의 명칭과 설치연대,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언급되는 完山정을 살펴보자. 完山정의 경우 眞興王 5년(685) 이전에 존재하던 下州정을 해체하고 설치한 조직이다. 6정 구성 군사조직 중 하나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신라 중대시기에 설치된 것이다. 6정이라는 명칭은 그를 구성하는 6개의 부대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6정과 같이 복수의 구성부대로 이루어진 9서당, 10정 같은 군사조직들도 마찬가지다. 즉 군단을 구성하는 부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설치된 부대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야 軍號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6정의 성립은 眞興王 5년(685) 完山정의 설치와 더불어 완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²⁰⁾

한편 무관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료계통과 찬술방식, 서술대상의 시기 등을 놓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무관조를 구성하는 侍衛府, 諸軍官, 凡軍號, 衿·花 각 부분에 대한 사료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²¹⁾ 그중 23군호가 작성된 범군호의 사료 성격과 찬술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의견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는데, 범군호에 기록된 軍호가 신라 전시기의 軍호를 모두 모아 기록되었다는 견해와,²²⁾ 특정 시기에 존재했던 軍호가 정리되어

18)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六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 改爲貴幢 衿色靑赤 三曰漢山停 李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 罷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六年 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靑 四曰牛首停 李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李悉直停 太宗王五年 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兎山停 李下州停 神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兎山停 衿色白紫.”

19) 이문기, 2012, 201쪽.

20) 이문기, 1997, 81~82쪽.

21) 무관조의 사료적 성격과 무관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末松保和, 1932 : 1954 ; 井上秀雄, 1957·1958 : 1974 ; 이문기, 1990 : 1997 : 2012 ; 홍승우, 2015 ; 박수정, 2017 ; 전덕재, 2019 : 2021 참조.

22) 末松保和의 경우 23군호에 신라 중고기, 중대, 하대 등 각 시기의 군사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末松保和, 1954, 311쪽), 이인철은 末松保和보다 그 시기를 좁혀 신라 중고기와 통일기 군사조직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이인철, 1993, 325~358쪽).

있다는 견해이다.²³⁾ 이 두 의견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의견, 즉 23군호가 특정 시기에 존재한 군호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삼국사기』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C-① 진평왕 建福 41년, 갑신 겨울 10월, 백제가 대거 쳐들어왔는데, 군사를 나누어 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 등 여섯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왕이 상주·하주·귀당·法幢·誓幢 5軍에 명하여 가서 구하도록 하였다.²⁴⁾

C-② 태종대왕때 백제가 와서 助川城을 정벌하자, 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나가 싸웠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에 道玉이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승려가 된 자는 ‘먼저 학술에 정진하여 본성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 道의 쓰임을 일으켜 타인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모습만 승려와 유사할 뿐, 한 가지 善도 취할 것이 없다. 종군하여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만 같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승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며 이름을 驥徒로 바꾸었는데, 의미는 달려가서 군인들의 무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兵部에 가서 三千幢에 소속되기를 요청하였고, 마침내 군대를 좇아 적지에 이르렀다. ... 25)

C-①은 진평왕 46년(624) 백제군이 신라를 침범하여 속함성 등 6성을 공격해오자 상주정 등 5군을 보내 구원하도록 한 기사이다. 여기서 6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군부대로 ‘법당’이 보이는데, 법당의 경우 범군호에는 기록되지 않은 군사조직이다. 제군관 부분에서는 法幢主, 法幢監, 法幢頭上, 法幢火尺, 法幢辟主 등 법당 명칭이 들어간 5개의 군관직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법당’이라는 하나의 군사조직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百官幢, 京餘甲幢, 軍師幢 등 개별 군사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법당’ 명칭을 사용하는 단일 군사조직이 적어도 진평왕대까지는 존재했지만, 그 이후 무관조 범군호의 자료가 작성될 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군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⁶⁾

C-②는 태종무열왕대 백제가 조천성을 공격해오자 승려 도옥이 환속하여 취도라는 이름으로 ‘삼천당’에 입대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삼천당’이라는 이름의 군사조직이 태종무열왕 시기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관조 범군호 부

박수정은 특정 시기에 성립된 부대 명칭을 일괄적으로 전하지 않고, 이미 산실된 자료를 후대에 다시 정리한 것이 범군호라고 보았다(박수정, 2017, 86쪽).

23) 井上秀雄는 신문왕 10년(690)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리된 자료를 재정리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곧 범군호에서 보이는 군호는 동시에 병존한 것으로 이라고 하였으며(井上秀雄, 1974, 137쪽), 이문기도 이에 동의하여 신라 특정 시기에 병존하고 있던 군사조직을 정리해 둔 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고 보았다(이문기, 1997, 53-55쪽 : 2012, 195쪽).

24) 『삼국사기』 권47 눌치 “真平王建福四十一年甲申冬十月 百濟大舉來侵 分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25) 『삼국사기』 권47 취도 “太宗大王時 百濟來伐助川城 大王興師出戰 未決 於是 道玉語其徒曰 “吾聞 ‘爲僧者 上則精術業 以復性 次則起道用 以益他’ 我形似桑門而已 無一善可取 不如從軍 殺身以報國” 脫法衣 著戎服 改名曰驥徒 意謂馳驟而爲徒也 乃詣兵部 請屬三千幢 遂隨軍赴敵場.”

26) 이문기, 2016b.

분에서는 ‘삼천당’이라는 군사조직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10정의 이칭(異稱)으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삼천당’도 마찬가지로 범군호 자료가 정리될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0정으로 변화하여 이칭으로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범군호 부분은 신라 전체 시기의 군사조직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닌, 특정 시기에 존재했던 군사조직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그렇다면, 6정이 완비되자마자 10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도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료의 성격으로 보아, 6정·10정은 별개의 군사조직으로 병존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정이 10정으로 계승, 발전하였다는 견해는 6세기 중반 이후 삼국의 각축과 함께 신라가 팽창하면서 이동을 거듭하다가 군사적 요충지에 주둔한 지방 군사조직이 6정이고,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제도가 9주 5소경 체제로 완비됨과 함께 9주마다 1개씩 배치하는 10정(한산주는 2개 정 배치)이 신라통일 이후 지방 군사조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나온 견해이다. 즉 6정과 10정이 시기가 다르지만 지방 군사조직으로 나타나고, ‘정’ 명칭을 사용하는 유이(有二)한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 6정이 해체되고 그 기능과 역할 중 일부가 10정으로 계승,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²⁸⁾

하지만 6정과 10정을 비교해보면 두 조직의 다른 점이 많은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에서 두 군사조직을 설명하는 기사를 비교해보자. 6정을 설명하는 기사에는 6정을 구성하는 하위 군사조직에 관해 설명할 뿐 6정의 이칭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10정의 경우에는 그 이칭이 ‘삼천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삼국사기』 무관조에서 군사조직의 명칭 변화 모습이 기록된 군사조직은 전체 23개 군호 중 6정과 9서당 단 두 개 뿐이다. 만약 6정이 통일 이후 10정으로 변화했다거나, 또는 그 성격이 연결되는 군사조직이었다면 6정과 9서당 구성 군사조직의 명칭 변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에 대해 기록했거나, 6정과 10정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6정과 10정이 별개의 군사조직인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10정은 진흥왕 5년(544)에 처음 설치되었으며,³⁰⁾ 중고기 태종무열왕대 그 군사활동이 사료에서 확인되고, 10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삼천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정과 10정의 전체 군관조직을 비교해보아도 두 조직이 계승보다는 오히려 다른 군사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2]는 『삼국사기』 제군관에서 확인되는 군관직 중 6정과 10정에

27) 범군호 부분에서 기록한 군사조직의 존재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기, 2012, 201쪽 참조. 이문기는 범군호 조가 대체로 신문왕 5년(685)에서 효소왕 2년(693)년 경까지의 실태를 반영한 자료라고 하였다.

28) 김철준, 1990, 63쪽 ; 주보돈, 1987, 47-48쪽 ; 한준수, 2005, 217-225쪽.

29) 『삼국사기』 권47 취도 “十停【或云 三千幢】.”

30)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진흥왕 5년(544)에 10정이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0정은 삼국통일 이후 9주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야 모든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진흥왕 5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태종무열왕 시기 활동 모습이 보이는 삼천당의 설치연대로 판단하고 있다(井上秀雄, 1974, 191-192쪽 ; 이경섭, 2018, 111쪽).

속해있는 군사조직을 표로 비교한 것이다.³¹⁾

[표-2] 6·10정 소속 군관 비교

군관	군관	군관																
		장군	대관대감	대대감	제감	감사지	소감	화척	군사당주	대장적당주	보기당주	흑말보당주	삼천당주	군사감	대장대감	보기감	삼천감	삼천졸
6정	대당	4	5	0/3	5	1	15/6	15/6	1	1	6	30	0	2	1	6	0	0
	상주정(귀당)	0/4	0/5	0/2	0/5	1/0	0 15/4	0 10/4	1/0	1/0	0/4	0/22	0	2/0	1/0	0/4	0	0
	한산정	3	4	3	4	1	15	10	1	1	6	28	0	2	1	6	0	0
	완산정	3	4	2	4	1	13	10	1	1	4	20	0	2	1	4	0	0
	우수정	2	4	2	4	1	13	10	1	1	4	20	0	2	1	4	0	0
	하서정	2	4	0	4	1	12	10	1	1	0	0	0	2	1	0	0	0
10정	음리화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고양부리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거사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삼랑화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소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미다부리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남천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골내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벌력천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이화혜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6정은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 기록된 군관직 31개 중 17개의 군관직이 소속되어 있다. 반면 10정은 제군관 군관직 중 隊大監, 少監, 火尺, 三千幢主, 三千監, 三千卒 등 6개의 군관직만 존재한다. 여기서 10정의 ‘이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삼천당’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삼천당주, 삼천감, 삼천졸 등 ‘삼천’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삼천’ 계열 군관직이 확인된다. 이 ‘삼천’ 계열 군관직은 6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관조 제군관 기록 군관직 중 대대감, 소감, 화척 등 3개 군관직은 6정과 10정 모두에 소속되어 있다고 확인된다.³²⁾ 그러므로 두 군사조직이 공유하는 군관직이 존재한다고 보일 수

31) 한준수, 2005, 228쪽 ; 2012, 123쪽. 단 삼천졸은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는 총원과 상당 위계만 나타날 뿐인데, 이문기는 이들을 10개 부대로 나눠 10정에 15인씩 배치하여 표를 작성하였다(이문기, 1997, 131쪽). 한준수도 이 견해를 따라 삼천졸을 10정에 각 15명씩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필자도 이를 따랐다.

32) 『삼국사기』 권47 취도 “隊大監 領馬兵 鬪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少監 眞興王二十三年置 大幢十五人 貴幢十五人 漢山停十五人 河西停十二人 牛首停十三人 完山停十三人 … 領騎兵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領步兵 大幢六人 漢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火尺 …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領騎兵. 大幢六人 漢

있다. 그러나 6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 군관과 10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 군관은 그 兵種이 다르다. 6정의 대대감, 소감, 화척은 步兵과 관련된 군관직이다.³³⁾ 반면 10정의 대대감, 소감, 화척은 騎兵, 馬兵과 관련된 군관직이다.³⁴⁾

한편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 기록되어 있는 군관직 가운데 최고위 군관직은 將軍이다. 장군은 경덕왕대 추가로 장군직이 설치되었다는 熊川州停을 제외하면, 6정과 9서당에만 존재한다.³⁵⁾ 만약 10정이 6정이 재편된 것이고, 그 임무를 계승한 군사조직이라면 최고위직인 장군직이 10정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흔적이 『삼국사기』 무관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곧 양 군사조직 모두에 속해있는 동일한 직책과 역할의 군관직이 없으므로, 6정이 10정으로 재편·계승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6정과 10정은 전혀 다른 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6정과 10정 내용이 기록된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 부분이 특정 시기의 존재했던 군사조직을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과 제군관에 기록된 6정과 10정 양 군사조직에 속한 군관직을 비교했을 때, 10정이 6정을 계승한 군사조직이 아닌, 별개의 군사조직으로서 병존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Ⅲ. 신라 중대 정(停)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

지금까지 6정과 10정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병존한 별개의 군사조직임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부터는 통일 이후 신라 중대 6정과 10정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 領步兵 共三百四十二人 位與少監同.”

33)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 6정에 든 대대감, 소감, 화척의 숫자를 설명하면서 보병을 거느린다(領步兵)고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34)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 10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의 인원수를 설명하면서 기병을 거느린다(領騎兵, 領馬兵)고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서 대대감은 마병(馬兵)을 거느리는 자리와 보병(步兵)을 거느리는 자리로 구분되고, 소감과 화척은 기병(騎兵)을 거느리는 자리와 보병을 거느리는 자리로 구분된다. 여기서 같은 말을 활용하면서도 마병과 기병으로 한자를 사용한 것은 분명 양자가 구분되기 때문일 것이지만 정확히 무엇이 차별점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상기는 대대감이 마병을 통솔한다고 한 점에서 마병이 기병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양적으로도 더 많으며, 말을 타고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에 더해, 기동 중 사격까지 가능한 병종이었고, 기병은 그러한 마병 안에서 특정한 임무 등에 의해 다시 구분된 병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최상기, 2022, 80-81쪽).

35) 『삼국사기』 권47 취도 “諸軍官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謂營爲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位自眞骨級浪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는 기록의 순서를 볼 때 규모가 크거나 중요 부대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여기서 6정과 10정은 범군호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순서에 기록되고 있다. 범군호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로 기록된 군사조직은 9서당과 5州摠이다. 주지하다시피 9서당은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핵심 중앙 군사조직으로 이해되며, 5주서는 서당과 관련된 군사조직으로 소백산맥 안쪽의 본(本)신라지역으로 진입하는 적을 요격하고,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와 소경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³⁷⁾ 두 부대는 그 임무와 역할로 유추해볼 때 신라 군사조직에서 그 위상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군사조직 앞부분에 기록된 6정과 10정 또한 신라 군사조직에서 그 위상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정과 10정은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에서 ‘停’ 글자를 사용하는 둘 뿐인 군사조직이다. 신라에서 ‘정’은 본래 ‘營’, 즉 군부대의 주둔지를 뜻하는 말이다.³⁸⁾ 그러나 무관조 기록에서는 ‘정’은 지역명과 결합하여 ‘어느 지역의 군사조직’임을 나타내고 있다.³⁹⁾ 곧 ‘정’이 처음 설치된 6세기 중엽에는 ‘주둔지’, ‘군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시기가 흘러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친 후에는 ‘정’의 뜻도 그 자체로 군사조직, 부대를 뜻하는 단어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을 쓰는 군사조직은 무관조에 기록된 23군호 가운데는 6정과 10정만 확인된다. 범군호에 기록된 23군호 중 다른 부대는 모두 ‘幢’으로 끝나는 데 반해, 이 두 군사조직만 ‘정’으로 끝난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그럼 두 군사조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앞서 제시한 [표-2]를 확인해보면, 6정과 10정에 소속되어 있는 군관직 중 겹치는 부분이 없다. 공통으로 속해있는 대대감, 소감과 화척의 경우 6정은 보병을 통솔하고, 10정은 기병을 통솔하여 그 병종이 다르다. 그런데 겹치는 군관직이 없다는 부분이 두 군사조직이 병존했다는 것을 확인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부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6정은 많은 종류의 군관이 소속되어 있지만 기병관련 군관직과 ‘삼천’ 계열 군관직이 빠져있다. 반면 10정은 기병관련 군관직과 ‘삼천’ 계열 군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6정과 10정이 서로 계열과 병종이 다른 군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6정과 10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을 연결한다면, 하나의 대규모 군사조직으로도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6정·10정이 보완관계에 있으며 대규모 군사조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면, 이 두 군사조직의 위계, 즉 지휘관계는 어떠할까? 이 지휘관계는 6정과 10정에서 최고위 군관직의 관위로 확인할 수 있다.

36) 이상훈, 2016, 300쪽.

37) 홍성열, 2022a, 81쪽.

38)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羅人謂營爲停】”.

39) 홍성열, 2023, 186쪽.

D-① 장군은 모두 36명이다. 대당을 맡은 것은(사람이) 4명, 귀당은 4명, 한산정은 3명, 완산정은 3명, 하서정은 2명, 우수정은 2명이다. 관등이 진골 상당에서 상신까지인 사람을 임명하였다. 녹금당은 2명, 자금당은 2명, 비금당은 2명, 황금당은 2명, 흑금당은 2명, 벽금당은 2명, 적금당은 2명, 청금당은 2명이다. 관등이 진골 급찬에서 각각까지인 사람을 임명한다. 경덕왕 때 웅천주정에 3명을 더 두었다.⁴⁰⁾

D-② 대대감. 마병을 통솔하는 것이 계금 1명, 음리화정 1명, 고랑부리정 1명, 거사물정 1명, 삼랑화정 1명, 소삼정 1명, 미다부리정 1명, 남천정 1명, 골내근정 1명, 벌력천정 1명, 이화혜정 1명, 녹금당 3명, 자금당 3명, 백금당 3명, 황금당 3명, 흑금당 3명, 벽금당 3명, 적금당 3명, 청금당 3명, 청주서 1명, 한산주서 1명, 완산주서 1명이다. 보병을 통솔하는 것이 대당 3명, 한산정 3명, 귀당 2명, 우수정 2명, 완산정 2명, 벽금당 2명, 백금당 2명, 황금당 2명, 흑금당 2명, 자금당 2명, 적금당 2명, 청금당 2명, 비금당 4명이다. 모두 70명이며, 모두 금(衿)을 붙였다. 관등이 나머지 아찬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⁴¹⁾

D는 장군과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의 장군 기사 부분과 대대감 기사 부분으로 각 군사 조직별 장군직, 대대감직의 임명 숫자와 임명할 수 있는 관위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장군, 특히 6정에 임명되는 장군직의 경우 관위를 진골 上臣부터 上堂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대감은 奈麻에서 阿滄까지의 관위를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신은 신라에서 최고 관직인 上大等を 이야기하는데,⁴²⁾ 제2위인 伊滄 이상의 관위를 가진 이들이 임명된다. 따라서 6정의 장군직은 신라의 높은 관위를 가진 이들만 임명될 수 있었다. 상당의 경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보통 제9위 級滄 ~ 제6위 阿滄의 관위를 가진 자가 임명된다고 보고 있다.⁴³⁾ 따라서 6정 장군은 진골이며 제1위 이별찬 ~ 제9위 급찬 관등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었다.

대대감은 제11위 나마 ~ 제6위 아찬 관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임명된다. 장군과 대대

40)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諸軍官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謂營爲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位自眞骨級滄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41)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隊大監 領馬兵 屬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綠衿幢三人 紫衿幢三人 白衿幢三人 黃衿幢三人 黑衿幢三人 碧衿幢三人 赤衿幢三人 青衿幢三人 菁州誓一人 漢山州誓一人 完山州誓一人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碧衿幢二人 綠衿幢二人 白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紫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緋衿幢四人 共七十人 並著衿 位自奈麻至阿滄爲之.”

42)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上大等【或云 上臣】”

43) 武田幸男, 1965 : 정경숙, 1985, 9쪽 : 정덕기, 2021, 142~147쪽. 한편 ‘상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선태는 ‘당(堂)’으로 상징되는 국가 의례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 관인으로 이해하였으며(윤선태, 2000, 29~30쪽), 박동명은 ‘당’ 즉 남당(南堂) 위에 올라 국왕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정무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자격자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박동명, 2018, 19~24쪽).

감의 임명 관위를 비교해보면 대대감이 상대적으로 그 관위가 낮다. 또한 대대감은 임명 조건에 골품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진골 외에 6두품, 5두품 등도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6정의 최고 무관은 장군이고, 진골 중 최상급 관인이 임명되었다. 반면 10정의 최고 무관은 대대감이고, 상급·하급 관인이 임명되었다.⁴⁴⁾ 장관의 관위를 고려하면, 6정은 10정의 상급 부대로서 10정을 지휘·통제했다고 이해된다.

이렇게 6정이 10정의 상위 군사조직이며, 양자가 지휘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6정이 10정을 어떻게 지휘하고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10정은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이 종료되고 전국을 9개 주로 재편한 통일신라 지방제도에 맞춰 각 주에 1개 정이 설치, 운영되었다. 여기서 관할구역이 넓은 한산주에만 1개의 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2개의 정이 설치되면서 총 10개의 정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10정의 경우에는 그 관할지역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6정은 그 관할지역을 설명하기 어렵다. 6정은 왕경의 대당과 지방의 5정을 합하여 6개의 군사조직을 이야기하는데, 왕경에 위치한 대당을 제외하고 5정의 관할구역을 9주에 맞게 설정해야하기 때문이다. 9개 주로 구분된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에 지방제도에 5정의 관할구역을 대입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5정의 관할구역 설정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로이다. 신라는 소지왕 9년(487) 郵驛을 설치하고 관도를 정비하였다.⁴⁵⁾ 우역은 중앙에서 발급한 문서나 政令이 순조롭게 지방에 도달하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역의 설치는 중앙과 지방의 인적 왕래나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망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우역의 설치와 함께 관도를 수리하고 관리하도록 한 것은 우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⁴⁶⁾ 이렇게 정비된 교통로는 신라의 대외확장과 지방통치에 사용되었다. 이후 신라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로가 개척되기도 하였다.

신라는 통일 이후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재편하였고,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기 위해 이 사이를 왕래하는 교통로를 정비, 구축하였다. 이때 신라가 구축한 교통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권37 地理 4의 ‘삼국에서 이름이 있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暹通 5개를 통일 이후 신라에 존재했던 교통로라고 판단하고 있다.⁴⁷⁾ 이 5개 교통로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왕경과 5소경, 9주를 연결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6정 중 지방에 위치한 5정은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44) 급찬 이상이 상급 관인·고관이고, 대나마 이하가 하급 관인·하관이다(정덕기, 2021, 218~221쪽). 또 공복제의 구조상 대아찬 이상이 최상급 관인이며, 대사 이하는 최하급 관인이다(『삼국사기』 권33, 색복, 범흥왕제).

45) 『삼국사기』 권3 소지마립간 9년 3월.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46) 후보돈, 2016.

47) 신라의 교통로(5통)에 대한 연구는 井上秀雄, 1974 ; 서영일, 1999 ; 한정훈, 2003 : 2006 ; 정요근, 2011 ; 박장환, 2020 ; 이용현, 2022 참조.

를 매개로 하여 전국의 9주를 분할하여 관할구역으로 삼지 않았나 한다.

통일신라 시기에 상주에서 鷄立嶺을 지나 충주(중원경)를 거쳐 한강유역으로 나아가는 길, 竹嶺을 거쳐 원주(북원경)를 지나 안변으로 나아가는 길, 왕경에서 동해안을 따라 국경까지 나아가는 길, 상주에서 보은을 거쳐 皮盤嶺을 지나 청주(서원경)를 거쳐 공주(웅진)과 대당의 교사철의 교통로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黨項津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요 간선 교통로로 존재하였다.⁴⁸⁾ 이 교통로들은 대부분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 소백산맥 이남의 본신라지역에서 탈피하여 백제와 고구려지역으로 확장할 때 사용하던 교통로였으며,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때에도 사용하던 교통로였다. 또한 이 교통로들은 왕경과 지방, 국경과 관문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편 10정의 경우 군사적 기동로 및 교통로로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 주둔지를 설정했다.⁴⁹⁾ 따라서 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6정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왕경에 주둔하는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정의 관할지역을 설정해보면, 우선 통일 이후 9주로 개편된 지역명을 띤 군사조직이 눈에 띈다.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이 그것이다. 한산정과 우수정, 하서정은 그 군사조직 명칭과 동일한 9주 구역을 관할했다. 한산정이 관할하는 한산주는 계림령로를 지나 충주(중원경)를 거쳐 한강유역으로 가는 간선 교통로가 위치한 곳이다. 우수정이 관할한 우수주는 죽령을 거쳐 원주(북원경)를 통해 안변, 원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위치하고 있다. 하서정이 관할한 하서주는 동해안을 따라 동북 국경과 왕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자리잡고 있다.⁵⁰⁾ 따라서 한산정은 한산주를, 우수정은 우수주를, 하서정은 하서주를 관할로 하고, 한산정은 10정 군사조직 중 한산주 내에 주둔한 南川停·骨乃斤停을, 우수정은 우수주 내에 주둔한 伐力川停을, 하서정은 하서주 내에 주둔한 伊火兮停을 예하 관할 부대로서 통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6정을 구성하는 부대 가운데 지방에 위치한 5개 정 중 3개의 정이 북방 3개 주를 각 하나씩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경우 북방 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를 단 2개 정으로 관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신라가 지방 주둔 5정 중 3개를 북방 3개 주에 주둔하게 한 것은 신라의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세력이 북방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나당전쟁이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은 신라를 침공하여 정복하겠다는 욕심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발해가 건국되기 이전까지 옛 고구려지역은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따라서 신라는 북쪽 국경 주변에 도사리는 위협에서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북방 3개 주인 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에 군부대 및 병력을 더 촘촘히 배치했다.

실제로 앞서 제시한 [표-1]을 통해 신설된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9서당 구성 군사조직과 5

48) 서영일, 1999.

49) 서영일, 1999, 126-173쪽 ; 한준수, 2012, 118쪽.

50) 우수주·하서주에 위치한 간선교통로는 『신당서』 권219 열전144 북적발해에 ‘신라도’로 기록된 발해 교통로와 연결되어 발해-신라간 교역로로 이용되었다(윤재운, 2021).

주서 구성 군사조직을 제외하고 牛首州屬幢, 新三千幢(牛首州三千幢, 奈吐郡三千幢, 奈生郡三千幢) 三邊守幢(漢山邊, 牛首邊, 河西邊) 등 북방 3개 주에 주둔하는 군사조직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는 북방 3개 주에 6정 중 절반인 3개 정을 배치한 것이다.

후방의 6개 주는 북방에 배치한 3개 정과 수도에 위치한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정이 구역을 나누어 관할하였을 것인데, 귀당(상주정)과 완산정(하주정)이 그것이다. 이 2개 정의 관할구역도 역시 교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관할구역을 구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귀당은 상주정에서 명칭이 개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하지만 『삼국사기』 문무왕 원년(661) 7월 17일 기사에 貴幢總管과 上主總管의 임명이 함께 확인된다.⁵²⁾ 또한 진흥왕 대 대가야 정벌에서 공훈을 세운 활약했던 斯多舍이 귀당 裨將으로 임명되어 출진한 기록이 확인된다.⁵³⁾ 이와 함께 진평왕 46년(624) 백제의 신라 공격 당시 백제를 방어하던 급찬 訥催(訥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국사기』 열전 訥催전에서도 상주정과 귀당이 함께 출전한 기사가 확인된다.⁵⁴⁾ 따라서 귀당은 상주정과 별도로 진흥왕 2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별개의 부대로 병존한 부대임을 알 수 있다.⁵⁵⁾

상주정과 귀당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이 일단락되고 군사조직이 개편되면서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여기서 상주정의 이름이 사라지고 귀당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옛 상주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했던 부대인 상주정과 귀당이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옛 상주지역이 통합 군사조직인 귀당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귀당은 옛 상주정 관할 지역인 沙伐州를 관할구역으로 두었을 것이다. 사벌주는 왕경에서 출발하는 신라 교통로의 최중요 지역이다. 충주(중원경)과 한강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원주(북원경)과 안변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은 청주(서원경)을 거쳐 웅진이나 대당의 교의 거점인 당항진으로 연결되는 교통로(唐恩浦路)의 분기점이기도 하다.⁵⁷⁾ 따라서 귀당은

51)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六停, … 二曰 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 改爲 貴幢 衿色青赤.”

52) 『삼국사기』 권6 문무왕 원년 가을 7월 17일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總管 品日·忠常·義服爲上州總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總管 軍官·藪世·高純爲南川州總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總管 文訓·眞純爲河西州總管 眞福爲誓幢總管 義光爲郎幢總管 慰知爲屬衿大監.”

53) 『삼국사기』 권44 사다함 “眞興王命伊滄異斯夫 襲加羅國 時斯多舍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54) 『삼국사기』 권47 訥催 “百濟大舉來侵 分兵圍攻速舍·櫻岑·岐岑·烽岑·旗懸·元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55) 정구복 등 5인, 2014, 559쪽.

56) 상주정·귀당 통합 후 귀당이란 명칭은 잔존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2가지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첫번째는 6정은 보병 중심 부대이므로, 상주정·귀당 통합 시 귀당이 상주정으로 통합되나, 명칭은 귀당으로 하였다는 견해이다(末松保和, 1954, 328쪽). 두번째는 문무왕 5년(665) 거열주 설치로 상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며 상주정의 지역적 존립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문기, 1997, 117~120쪽.)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곳을 관할구역으로 주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귀당의 경우 단순히 사별주만을 관할구역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별주만 관할구역으로 했을 경우 북방 3주의 경우처럼 군사조직의 명칭에 관할 주의 이름을 붙여 사별정(상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다른 명칭들과 통일성이 있다. 귀당과 상주정의 통합 후 그 명칭을 귀당으로 사용한 이유에는 사별주가 교통로의 분기점이며 왕경으로 들어가는 최중요 지역을 지켜야 하므로 그 부대 이름처럼 충성도가 높고, 고귀한 신분 출신의 인물들로 부대 구성원을 조직해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보다는 관할구역이 사별주 경계를 넘어 웅천주와 완산주 등 복수의 주를 관할구역으로 두었기 때문에 귀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연결해볼 수 있는 것이 각 군사조직의 衿色이다. 금은 부대 깃발·상의 도련에 붙인 무관의 위신재이며,⁵⁷⁾ 현대 군에서 사용하는 部隊標紙의 역할을 하였다.⁵⁹⁾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에는 각 군사조직을 설명하면서 그 끝부분에 군사조직이 사용한 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6정과 10정의 금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삼국사기』 무관조에 기록된 정 군사조직의 금색

군호	구성 군사조직	금색
6정	대당	자백(紫白)
	귀당(상주정)	청적(靑赤)
	한산정	황청(黃靑)
	우수정	녹백(綠白)
	하서정	녹백(綠白)
	완산정	백자(白紫)
10정	음리화정	청(靑)
	고량부리정	청
	거사물정	청
	삼량화정	흑(黑)
	소삼정	흑
	미다부리정	흑
	남천정	황(黃)
	골내근정	황
	벌력천정	녹(綠)
	이화혜정	녹

[표-3]에서 6정과 10정의 금색을 비교해보면 6정과 10정의 금색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금색이 나타난다. 먼저 앞서 살펴본 한산정·우수정·하서정을 살펴보면, 한산정은 금색으로 황

57) 『삼국사기』 권34 지리1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尚州…”

58) 정덕기, 2023, 167~178쪽.

59) 홍성열, 2022a, 83쪽.

청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했는데, 한산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골내근정과 남천정은 금색으로 황색을 사용하고 있다. 한산정과 골내근정, 남천정의 금색이 완전히 같은 색을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공유하는 색이 있다는 것은 3개의 부대가 지휘계통 등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찬가지로 우수정과 하서정은 금색으로 녹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수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벌력천정과 하서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이화혜정은 금색으로 녹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관련이 우수정·하서정과 벌력천정·이화혜정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⁶⁰⁾

그렇다면 귀당의 경우도 위 북방 3주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귀당의 금색은 청적이다. 10정 중 귀당의 금색과 공유되는 금색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은 音里火停, 古良夫里停, 居斯勿停으로 금색으로 모두 청색을 사용한다. 따라서 금색의 사례를 볼 때, 귀당은 음리화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과 지휘계통이나 체계 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구역으로 이 3개 정이 위치한 지역인 사벌주, 응천주, 완산주 지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부분은 완산정이다. 완산정은 옛 명칭이 하주정으로 신문왕 5년(685) 하주정을 폐지하면서 신설되었다고 한다.⁶¹⁾ 따라서 하주정 명칭에서 유추해보면 그 관할구역으로 옛 하주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옛 하주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敵良州, 菁州가 있다. 삼랑주는 문무왕 5년(665) 상주, 하주의 땅을 분할하여 설치했다.⁶²⁾ 청주는 문무왕 5년(665) 하주의 영역에서 분리된 居陁州에서 이름이 변경되거나 지역이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⁶³⁾ 따라서 하주정은 옛 하주지역이었던 삼랑주와 청주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했을 것이다.

여기에 하주정은 武珍州 지역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삼랑주, 청주, 무진주에 있는 10정 군사조직인 參良火停, 召參停, 未多夫里停이 금색으로 흑색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라 남방지역 3주에 위치한 삼랑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이 지휘계통 등에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지역은 왕경에서 서남지역으로 강주를 거쳐 무주로 향하는 교통로가 위치한 곳이다.⁶⁴⁾ 따라서 하주정은 귀당과 같이 주 경계를 넘어 3개의 주를 관할구역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주정을 혁파하고 두었다는 완산정은 그 이름으로만 보면 완산주를 관할구역으로

60) 하서정·우수정의 금색은 같다. 그런데 하서정의 경우 6정 군사조직 중 그 군관직이 없는 부분도 있으며, 군관의 수도 제일 적다. 한편으로 우수정과 하서정은 북쪽 경계지역이 안변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따라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2정으로 구분했지만, 두 조직이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색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61)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六停. … 六曰兎山停. 李下州停, 神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兎山停. 衿色白紫.”

62)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新羅, 良州 … 文武王 五年, 麟德二年割上州·下州地, 置敵良州.”

63) 『삼국사기』 권8 신문왕 5년 봄 “復置完山州 以龍元為摠管 挺居列州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浪福世為摠管”; 『삼국사기』 권34 지리1 “新羅 康州 … 神文王 五年 唐 垂拱元年 分居陁州 置菁州.”

64) 이용현, 2022, 147쪽.

두는 군사조직으로 판단하게 한다. 완산주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옛 백제의 영토였다. 옛 해주지역이 아니다. 또한 청색의 금색을 사용하여 귀당이 관할, 통제된 것으로 보이는 거사물정이 위치한 지역이다. 즉 귀당과 관할구역이 겹치게 된다. 한편으로 완산정의 금색은 백자인데, 해주정이 지휘통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남방 3주의 삼랑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이 사용한 금색인 흑색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남방 3주를 관할하는 6정 군사조직도 없게 된다. 하지만 이는 완산정이 설치될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완산정이 신설되기 1년 전인 신문왕 4년(684), 지금의 익산인 金馬渚에서 고구려 유민 大文이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자, 이에 남은 세력이 관리를 죽이고 읍을 장악하는 등 반란을 일으켰고, 신라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하였다.⁶⁵⁾ 신라는 반란을 진압한 이후, 백제의 옛 지역이기도 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이곳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금마저가 속한 완산주 지역을 예의 주시하면서, 완산주 지역의 반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완산주 설치와 함께 해주정을 폐지하고 완산주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완산정을 설치한 것이다.

여기서 6정 군사조직 중 해주정을 폐지하고 완산정으로 재편한 것에 대해, 금마저 지역 반란 진압시 해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귀당 등 다른 부대가 투입되어 진압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후 임시로 해주정을 완산정으로 재편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에 유지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⁶⁶⁾

그러나 해주정이 폐지되고 완산정으로 개편된 것은 해주정이 주둔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적 위협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군사조직을 이동시켜 반란 등 군사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하여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의 경우 군사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북방 경계에 바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북방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귀당은 당나라로 통하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지역 및 북방 교통로들이 분기하는 최중요 지역인 사벌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귀당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해주정의 관할구역이었던 남방 3주는 북방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낮았다. 또한 해주정의 관할구역인 삼랑

65) 『삼국사기』 권8 신문왕 4년 11월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 ; 한편 『삼국사기』 권47 취도 부분에는 취도와 함께 나라에 목숨을 바친 두 동생 부과(夫果)와 필실(逼實)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있는데, 필실이 보덕성에서 남은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귀당 제감으로 참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다른 부대가 아닌 귀당이 진압부대로 투입된 것에 대해, 필자의 의견처럼 완산주 지역이 귀당의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반란 진압에 투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66) 한준수, 2012, 110~114쪽. 한준수는 6정의 개편이 신라 중고기의 군사적 질서와 귀족의 사병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율령체제를 중심으로 한 신라 중대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었고, 이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지방제도를 9주 5소경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10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주와 청주의 경우 왕경과 상당히 가까워서 군사적 문제 발생시 왕경에 주둔한 군대가 남방의 문제지역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해주정이 개편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⁶⁷⁾

한편 신설된 완산정의 관할구역인 완산주 내에는 10정 군사조직 중 하나인 거사물정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거사물정은 완산주 내에 있으므로 완산정의 지휘를 받고, 사용하는 금색은 완산정을 따라 백색으로 해야한다. 그런데 실제 기록상에서는 귀당이 사용하고 있는 금색인 청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완산주 지역이 완산정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되었으나, 그 안의 거사물정은 귀당의 지휘통제를 따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거사물정이 위치하는 지역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으로 비정된다.⁶⁸⁾ 이 지역은 남원, 운봉을 지나 팔랑치를 넘어 경남지역과 연결되는 내륙교통의 중추지역으로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신라를 공략하고자 이용한 교통로이기도 하다. 즉 완산주에서 청주, 사별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통로를 통제하는 것도 거사물정의 임무 중 하나였을 것인데, 완산정은 금마저에서 일어난 반란 진압 후 후속책으로 나온 특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설치된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산주 내의 소요사태를 감시, 진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이 교통로를 통제하는 임무를 가진 거사물정은 완산정이 아닌 귀당이 지휘를 하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거사물정이 금색으로 백색이 아닌 귀당이 사용하는 금색인 청색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해보면, 6정은 지방의 광역주를 관할하는 군관구의 모습을 한 군사조직으로, 10정 군사조직의 상위 부대로서 위치하며 이들을 지휘했다. 6정과 10정의 지휘계통은 그 부대들이 사용한 금색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왕경의 대당을 제외한 지방 주둔 5정은 국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북방 3주(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에 주별로 1개씩의 정(한산정, 우수정, 하서정)을 두어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귀당은 중부지방이라 할 수 있는 사별주, 응천주, 완산주 3개 지역을, 해주정은 남방 지역인 삼량주, 청주, 무진주를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이때 금마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신라는 반란 진압 후 이 지역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67) 이용현은 신라 교통로 중 하나인 ‘동해통’을 비정하면서, 포항·경주 이북의 동해안을 거쳐 명주를 경유하는 기간도로망을 동해통으로 비정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동해통으로 비정했던 경주 남쪽의 부산·김해·창원을 넘어 통영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곳이 소경 중 특별한 위상을 가진 금관경을 포함하고 삼량주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왕경의 근기지역으로 취급되면서 5통의 교통로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이용현, 2022, 147-148쪽). 그렇다면 남방 3주를 담당하는 해주정이 개편되어 완산정이 되고, 남방 3주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6정 군사조직이 폐지되는 것도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68) 거사물정이 위치한 거사물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으로 보는 견해(안정복, 『동사강목』 권3 상 갑자년조, 김정호의 「靑丘圖」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으로 견해(정구복 외, 2012, 569쪽),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으로 보는 견해(정구복 외, 2012, 339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으로 보는 견해(이문기, 1997, 144쪽 ; 최범호, 2023, 162-163쪽) 등이 있는데, 남원시 산동면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험도가 낮고, 왕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왕경의 군사들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남방 지역을 관할하는 해주정을 폐지, 완산정으로 개편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통일 이후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과 10정의 관계, 그리고 신라 중대 6정과 10정의 운용에 관해 확인해보았다. 삼국통일 이후에도 6정은 변화하거나 축소, 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었다. ‘정’ 이름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을 보았을 때 6정은 10정의 상위 부대로서 10정을 지휘하였다. 6정과 10정에 소속되어 있는 군관직을 살펴보면 보병군관만 소속되어 있는 6정과 기병군관이 포함되어 있는 10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6정 중 왕경의 대당을 제외한 5정은 군관구처럼 운영되었다. 5정 중 3정은 1개의 주를 관할하나, 상주정(귀당)은 2~3개의 주를 함께 관할하였다. 6정의 관할구역은 왕경-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연관되며, 1개의 정은 교통로상 경유지를 묶어 관할하였다. 6정의 각 구성부대는 같은 금색을 쓰는 10정 군사조직을 예하에 두고 지휘하였다. 왕경에서 출발하는 간선 교통로를 관리하기 쉬운 교통의 요지에 10정을 두고, 하나의 간선 교통로가 연결된 지역을 묶어 대당 외 지방 주둔 5정이 광역의 군관구의 모습으로 지휘하였다.

다만 완산정의 경우 금색이 백자인데 반해, 삼량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은 금색이 흑색이기에 금색이 다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하여 논지를 보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6정과 10정이 통일 이후에도 존재하여 지휘관계로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면,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두 개의 군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당의 지휘를 받는 군사조직(6서당, 5주서, 2절말당)과 ‘정’ 명칭을 가진 군사조직(6정, 10정)이다. 이 둘의 관계와 운용 모습을 밝힐 수 있다면, 신라 중대 군사제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2024.10.31,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姜仁求 외 4인, 2002, 『(譯註) 三國遺事』 3, 을유문화사.
- 강봉룡, 1987, 「新羅 中古期'州'제의 형성과 운영」, 『한국사론』 16.
- 강봉룡, 1990,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4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9 통일신라, 탐구당.
- 김중수, 2004, 「新羅 中代 軍제의 구조」, 『한국사연구』126.
- 김중수, 2020, 『한국 고대·중세 군사제도사』, 국학자료원.
- 김철준,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春秋文庫.
- 김철준, 1990, 『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 노근석, 1992,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한국고대사연구』5.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동명, 2018, 「신라 六停 將軍의 就任資格과 그 性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2017,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장환, 2020,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동 시론」, 『중앙고고연구』11.
- 서영교, 2000,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대하여」, 『신라문화』17·18.
- 서영교, 2016, 『新羅 軍事史 新研究』, 은서.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영일, 1999,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52.
- 신범규, 2024, 『신라중고기 軍事制度의 정비와 운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선태,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108.
- 윤재운, 2021, 「신라도의 노선과 교류」, 『高句麗渤海研究』69.
- 이경섭, 2018,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탐라문화』59.
- 이기백, 1977,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學報』3(1).
- 이기백, 1978,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1, 일조각.
- 이명식, 1988, 「新羅 統一期의 軍事組織」, 『한국고대사연구』 1.
- 이문기, 1986, 「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29.
- 이문기, 1990,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史料的 檢討」, 『歷史教育論集』15.
- 이문기, 1993, 「新羅 中古期 同停制의 成立과 展開」, 『大丘史學』44.
- 이문기, 1997,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 이문기, 1999,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對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16.
- 이문기, 2012,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한국군사사』Ⅱ, 육군본부(군사연구소).
- 이문기, 2016, 「『三國史記』 ‘法幢 冠稱 軍官’ 기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교육론집』60
- 이상훈, 2013,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16, 「군사조직과 그 운용」,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8-신라의 통치제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李成市, 2022,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 이영호, 2016,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5-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이용현, 2022, 「통일신라 기간도로 5通의 방향과 범주」, 『민족문화연구』97.
- 이인철, 1989, 「新羅 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54.
-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 임기환, 2016, 「신라의 삼국통일-대내의 정세변동과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고대사』 1, 푸른역사.
- 전덕재, 1997, 「신라 하대 진의 설치와 성격」, 『軍史』35.
-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 변화와 군주(軍主)」, 『역사와 현실』40.
- 전덕재, 2019,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제군관·범군호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6.
- 전덕재, 2021,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 전덕재, 2023, 『신라지방통치제도사』, 학연문화사.
- 정경숙, 1985, 「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48.
- 정구복 외 4인, 『역주 삼국사기』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덕기, 2021,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혜안.
- 정덕기, 2023, 『신라 상대 관복제도사』, 역사산책.
-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韓國古代史研究』63.
- 조법중, 1999,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16.
- 주보돈, 1987,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3·4.
- 주보돈, 2016, 「새로운 질서의 모색」,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2-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최경선, 2018, 「6세기 신라의 軍主와 광역 州의 관계」, 『중원문화연구』26.
- 최경선, 2019, 「6세기 신라 軍主의 군단과 그 역할」, 『중원문화연구』27.
- 최범호, 2018, 「新羅 上州·下州의 이동 과정과 운영」, 『전북사학』53.
- 최범호, 2023a,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군사 지리적 관계」,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6(1).
- 최범호, 2023b,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10정(停)의 역할」,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6(24-1).
- 최상기, 2013,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 운용」, 『한국사론』59.
- 최상기, 2022, 「신라 9誓幢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 -소속 軍官의 출신과 일부 兵種을 중심으로-」, 『中央史論』56, 2022.
- 최원식, 1987, 「軍事力の 增強과 軍事的 基盤」,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경상북도·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한정훈, 2003, 「신라통일기 육상교통망과 五通」, 『釜大史學』27.

- 한정훈, 2006, 「6·7세기 新羅 交通機構의 정비와 그 성격」, 『역사와 경계』58.
 한준수, 2005, 「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한국고대사연구』38.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올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한준수, 2016,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2.
 홍성열, 2022a, 「신라 통일기 5주서의 역할과 위상」, 『복약사론』15.
 홍성열, 2022b, 「신라 중대 한산주 2정의 설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42.
 홍성열, 2023, 「신라 군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고대 군사사,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산책.
 홍승우, 2015,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기재방식과 典據資料」, 『史學研究』117.
 홍주희, 1989, 「新羅幢停의 形成과 構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末松保和,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43-12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武田幸男, 1965, 「新羅の骨品體制事會」, 『歷史學研究』299.
 李成市, 1979, 「新羅六停の再檢討」, 『朝鮮學報』92, 1979.
 井上秀雄, 1957·1958, 「新羅兵制考」, 『朝鮮學報』11·12,
 井上秀雄, 1974, 「新羅王畿の構成」,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Abstract】

The Re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illa's Six Jeong(六停) and Ten Jeong(十停)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Hong, Seong-yeol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this article, we aim to discuss whether the *Yukjeong* (Six Corps), a core military organization during Silla's Middle and Late Period t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wars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Silla-Tang War, was disbanded or retained during the restructuring of Silla's military system after these wars.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Yukjeong* continued to exist without significant changes, reductions, or dissolution.

Looking at military units that used the term '*jeong*' (corps), the *Yukjeong* appears to have been the superior command unit over the *Sipjeong* (Ten Corps). When examining the military officer positions within the *Yukjeong* and *Sipjeong*, it is observed that the *Yukjeong* included only infantry officers, whereas the *Sipjeong* included cavalry officers as well, indicating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mong the *Yukjeong*, the *Daedang* (*Capital Corps*) in the royal capital was an exception, while the other five *jeong* functioned similarly to military districts. Of these five, three *jeong* governed a single province (*ju*), but the *Sangjujeong* (*Gwidang*) governed two to three provinces together.

The jurisdiction of the *Yukjeong* was closely linked to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the royal capital and local regions, with each *jeong* overseeing specific waypoints along these routes. Each *Yukjeong* unit commanded subordinate *Sipjeong* units, which used the same *geumsaek* (unit color) system. The *Sipjeong* units were stationed at strategic transportation hubs originating from the royal capital, facilitating control over regions connected by main routes. The five local *jeong*, excluding the *Daedang* in the capital, managed vast military districts based on these transportation networks.

However, the *Wansanjeong* presented an exception. While most *jeong* used the same *geumsaek*, the *Wansanjeong* used white, differing from the black *geumsaek* of the *Samryanghwajeong*, *Sosamjeong*, and *Midaburijeong*. This distinction is believed

to have resulted from a rebellion in *Geummajeo*. After suppressing the rebellion, Silla reorganized the region for surveillance and control, disbanding the *Hajujeong*, which governed the relatively low-risk southern region near the capital, and restructuring it into the *Wansanjeong*. The *Wansanjeong* was established with the specific purpose of monitoring rebellion and, unlike other *jeong*, did not command subordinate *Sipjeong* units.

Keywords : Silla, military organization, Yukjeong(Six Corps), Sipjeong(Ten Corps), geumsaek(unit color)